

Music Friends



음악교육 한걸기어이 문화예술 향기 가득해!! _뮤지프렌즈

연대음악에서 발행하는 월간 프렌즈식 매거진

Vol. 46 JUNE 2011



JUNE MF's FRIENDS

MF Interview

작곡가 홍성석

Interview from VIENNA

빈 국립음대 클라우스 매츨 교수

출판사명 사 조대식

피아니스트 파스칼 드보이옹

음악은 36.5°C

세종 꿈나무 허모니 오케스트라

일본 와시노 아키히코 선생님의
음악교육센터 후원활동(기)

연탄뽕을 권유합니다!

박유나 교수의 Let's Re-New~

클래식 멜로디와 Pop 리듬과의 만남 4

비대면법의 확신영양법

교재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

음악교육 행복통신

트위터의 정겨운 지저림 속으로 팔로우~



정가 1,900원

978-89-52440-1-9

10798-0286

000000

000000

000000

01.46

이런 CD를 CD를

이런 CD를 CD를

이런 CD를 CD를

이런 CD를 CD를

이런 CD를 CD를





작곡가

우익지

오선지를
투과하는
빛의 스펙트럼,
그 황홀한
선율의 세계

그리스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작곡가 우익지는 지난달 열렸던 제6회 서울 스포링쇼내 악축제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색채를 녹여낸 곡 순보를 통해 친밀한 풀빛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작곡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을 투영해 풍부한 음악적 울림을 선사해온 그녀는 빛바래지 않는 열정과 늘 새로운을 추구하는 탐구심으로 자신의 음악 인생을 걸어왔다. 삶과 음악적인 성숙을 추구하면서 현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보내고 있다는 그녀를 만났다. | 글 김연영 / 사진 김현/인원희 | 출판 / 출판연락 info. info (02.730.4567)

작곡가 홍성지, 그녀 인생의 시계는 헤라거리며 움직이는 분침과 초침 대신 관색조의 빛을 발하는 다채로운 음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녀 내면에 꿈틀거리던 음표들의 향연은 그녀를 음악이라는 열정의 세계로 이끌었다. 매일매일 어디론가 사라졌던 다섯 살의 홍성지는 피아노 학원 앞에서 발견되곤 했고, 그때부터 피아노 학원은 놀이터가 됐다.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꼬마소녀는 피아노 건반이 그려진 종이 클 피아노 삼아 연주를 몰두하곤 했다. 비록 진짜 피아노는 없어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 하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홍성지는 집안을 가득 채운 클래식의 선율 속에서 성장했다. 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싹 피워온 피아니스트의 꿈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영화 〈아마 데우스〉를 보며 작곡가가 되겠다는 일망으로 바뀌었다. 어린 나이에 음악이라는 인생의 나침반을 발견했지만, 바로 항해를 시작할 수는 없었다. '아직 작곡을 공부하기에는 이르 다는 주위의 우려 탓에 그녀는 일반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어떤 날날 후에 서도 피아노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한양대학교 작곡학과에 입학하며 비로소 자신의 꿈 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선 그녀는 그때부터 온전히 음악에만 집중했다. 언제나 그녀의 최 중 목적지는 음악이라는 넓은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었기에 대학 졸업 후, 전액장학금을 받고 영국의 런던왕립음악원에 진학해 음악적 견문과 깊이를 넓혀갔다. 이후 영국 요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학문적 성취는 물론이고, 왕성한 창작 활동을 통해 작곡가로서 다양한 가능성의 세계를 펼쳐냈다. 문세랏 국제실내음악콩쿠르²⁰⁰³, BCM 월드뮤직데이즈 슬로베니아 국제반례음악콩쿠르²⁰⁰³, 크리스 작곡콩쿠르²⁰⁰⁴, 데살로니키 주립음악원 유리피안콩쿠르²⁰⁰⁵ 등에서 1등상을 거머쥐며 음악적 재능과 실력을 인정받 았고, 아시아작곡가연맹^{AC}에서 요시로이리노기념상²⁰⁰³과 국제여성음악인연맹^{IFMM}에서 테오도르판트상²⁰⁰⁵ 등을 수상했다. 허버드대학교 프롬음악재단, 마티페스티벌, 유니버 설세크리드파운데이션, 국제유이상협회, 다름슈타트음악제, 타케푸음악제, 금호아시아 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에서 위촉받아 곡을 발표하며 멈추지 않는 창작욕을 불태웠다. 그녀의 곡은 세계 40여 개 국가 130여 개 도시에서 연주되었고, 30여 개 도시 에서 라디오 전파를 타며 세계로의 항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오색찬란한 빛, 영롱한 음악으로 퍼지다

"무지개 빛깔의 청신한 음악"²⁰⁰⁴ *THE MUSIC OF HONG*, "진경 빛을 발하는 음악"²⁰⁰⁵ *THE MUSIC OF HONG*이라는 평가가 말해주듯, '색채'를 빼놓고 홍성지의 음악을 논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녀가 추구하는 음악적 지향점은 '빛'을 소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여성 3성부를 위한 무반주 미사곡 '미사 루멘 데 루미네'²⁰⁰²는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음악이다. 라틴어로 '빛'으로부딪히 '빛'을 뜻하는 제목을 가진 이 곡은 스칸디나비아 여성 트리오 페디에빌^{The Madonnas}의 음반 〈Sedh Mats〉²⁰⁰²로 ECM 레코딩사에서 발매된 뒤 돌풍을 일으켰다. 빈보드 클래식 차트와 아이튠 클래식 차트의 10위권 에 올랐을 정도로 대중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다. 이 곡은 전 세계 60여 개 도시에서 연주되고, 각종 페스티벌에 초청받으면서 그녀의 대표 레퍼토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녀가 이 곡에 특별히 애착을 갖는 이유는 이 곡이 단순히 그녀에게 유명세를 안겨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녀가 추구하는 음악 세계가 인정을 받았다는 점 때문이다. '빛'은 그녀의 음악이 추구하는 미학의 핵심이며 영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개혁 시절,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된 성화 속에서 보았던 강렬한 빛의 원형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강렬한 원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그리스 성화들을 보면서 성화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곡 을 쓰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됐어요. 시대정신은 변할지라도 결코 변치 않는 인간 존재의 근원 구원을 향한 영원의 노래, 바래지 않는 절대적인 빛처럼요." 허버드대학교 프롬음악





제단의 위촉곡인 '빛방울의 음영(Spectra of Backdrop)'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을 뜻하는 '프리즈머틱' 등 그녀의 곡에는 음악적 색채가 도드라지는 작품이 많다. "작곡가는 자기만의 색깔로 오직 자신만이 쓸 수 있는 언어로 된 창작품을 만들기 위해 죽을 때까지 곡을 쓰는 존재예요. 절대다수의 대중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을뿐더러, 대중의 기호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만의 색깔을 잃기 마련이죠. 그래서 실용 다수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도 제 신념대로 써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작곡가로서 음악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통영국제음악제에 두 번이나 위촉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청중들과도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대음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조금이라도 깨어지길 원하며, "음악은 그 음악을 작곡하는 이의 언어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고, 그 언어를 모른다면 당연히 난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음악은 화성과 멜로디가 기존 클래식 음악의 구성과는 전혀 달라요. 그것 때문에 생경하다는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귀에 썩익놓은 고정관념과 편견의 필터를 벗어버리고, 열린 귀로 듣고 열린 마음으로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음악도 비교를 통해 가치를 논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녀는 자신만의 음계를 만들거나 새로운 리듬 구성을 통해 음악의 세계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세

로움에 대한 각종, 색채에 대한 열망은 그녀가 음악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빛빛으로 승민해진 현재의 미주하다

그녀는 현재 남편과 함께 그리스 테살로니키에 거주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화려하고,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녀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음악과 한층 가까워졌다. 피란 하늘과 신선한 공기, 조금만 걸으면 마주치게 되는 바닷가는 그녀의 마음을 순백의 오션지에 투영하게 한다. 시적 감흥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가까이 하는 시집 가운데에서도 자유로운 영혼 행보는 그녀의 오랜 벗이다. 고국을 한동안 떠나 있었던 그녀가 이번 에 한국을 찾은 것은 의미가 깊다. 한층 더 뚜렷해진 그녀만의 색깔과 이야기를 담은 곡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서울스프링살내아추제가 일신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개최한 '제1회 현대음악 창작곡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얻은 곡 'Vernal Equinox'와 함께 말이다. 그녀는 수상 소감을 묻자 서울스프링살내아추제에서 자신의 곡이 초연되어 기쁘고 일신문화재단에 감사한다는 인사부터 전했다. 홍성지는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절기 '춘분'의 상징을 빌어 자신이 그리고 싶었던 봄의 색채를 이 곡 속에 투영해냈다. 이 곡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에 대한 레퀴엠이자, 홍성지가 꿈꾸는 미래 삶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2009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어요. 그해 가을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서 이 곡을 쓰기 시작한 뒤로 두 해의 겨울이 지나갔고, 올해에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됐죠. 이 곡을 쓰는 동안, 제 거울을 너무 길게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에 가서 어머니를 기리며 극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춘분을 지난 때처럼 햇빛이 쏟아지고, 만물이 약동하는 생기 넘치는 봄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곡의 제목을 '춘분'이라 지었어요." 다소 어두운 비가처럼 진행되던 곡은 중간에 전환점을 맞으며 제부처럼 희망적인 분위기로 끝난다. 그녀는 이 곡의 제목에 녹여낸 긴 겨울을 이겨낸 봄의 이미지처럼, 지금 현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그녀 인생의 봄은 바로 지금, 현재진행형. 이는 그녀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왔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녀는 매일 자신이 가장 밝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순간, 음악과 마주한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이미 그녀 몸매 맨 생활 습관 중 하나다. "예술가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해요. 그래야 자신이 다듬고 있는 보석을 가장 아름답게 세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꿈은 제가 그리는 음악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말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써내려가는 것이예요. 제가 항상 표현하고 싶은 한 가지의 변함없는 목표는 제 음악에 색깔을 입히는 일이에요. 제 음악이 강렬하게 채색되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금색으로 물결치는, 행동하는 색채로 물러가지길 원해요." 소박하지만 소신 있는 작가의식, 그래서 더욱 진중한 꿈을 간직한 그녀는 새로운 음악의 패러디들을 써내려가고 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앞으로 한층 다채롭고 풍성한 울림으로 이 세상을 향유한 빛으로 가득 채워나갈 것이다. 작곡가 홍성지의 눈부신 색채감으로 찬란히 빛날 다음 작품을 기대해본다. mf.kr